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운송 차질 가시화

광주·전남 각 지부서 거점 투쟁 공장 입구·인근 도로 통행 막아 경찰 580여명 투입...비상 근무 항만·산단 등 파업 장기화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틀째인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주요 물류 거점에서 평소보다 물동량이 줄어드는 등 운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항만·산단단지 등 업계에서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 대란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대비해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8일 광주·전남 화물연대와 각 기업·관공서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7일 출정식을 마친 광주지역 화물연대 조합원 1,500명은 현재 광주지역본부와 목포지부로 흩어져 운송 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역본부는 진곡화물공영차고지, 삼성전자, 위니아전자, 기아차, 평동 YSP, 나주 엘지화학, 장성 성안파일, 하남역,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등 10곳이며, 목포지부는 용당부두, 휴스틸, K라인, KC, 한일시멘트, 삼호중공업, 씨제이대한통운, 신외항, 힘스중공업 등 9곳이다. 광주지역 주요 거점 파업 규모는 기아차 100여 대, 금호타이어 180여 대, 진곡 공영차고지(광주화물연대 본부) 100여 대다. 이들은 공장 앞과 인근 도로에 화물차를 도열하고 전막 등을 설치해 투쟁 중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삼성전자, 위니아전자, 기아자동차광주공장, 진곡화물차고지에서는 철야농성이 진행된다. 광주경찰청은 경비인력 2개 중대 150여명을 진곡 공영차고지 등 주요 거점에 배치해 비상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김의선 화물연대광주본부 사무국장은 "벼랑 끝에 몰려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강경대응 하겠다는 정부에 유감스럽다"면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는 화물노동자 뿐만 아닌 도로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화물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화물연대 조합원 400여명도 전남 출정식을 마치고 광양항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태인동 등으로 이동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공장 입구와 도로변에서 물류 이송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으며, 광양경찰서는 200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한 여수산단에도 조합원 600여명이 7곳에 분산돼 거점 투쟁을 하고 있다. 이들 역시, 화물트럭 600여대를 주요 지점에 주차하고 물류 이송을 막고 있다. 일부 시민이 차량 통제에 항의하면서 조합원과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큰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화물연대가 거점 투쟁을 벌이며 물류 이송을 막고 있지만, 일부 긴급한 물류는 경찰과 협의해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경찰서는 기동 2개 중대 등 230여명을 주요 지점에 배치하는 등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주차를 방해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광양항을 관리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산단 업체는 파업 장기화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현재 광양항의 장치용(컨테이너를 쌓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61% 수준이어서 앞으로 1주일 정도는 문제가 없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산단의 업체 관계자는 "파업에 대비해 긴급한 물류는 이송을 마쳤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 화물연대가 대화로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광주·전남지역 노동자는 총 5,500명(광주 2,000명·전남 3,500명)으로 추산된다. /홍승천 기자



전남대 개교 70주년 '도전 그린벨' 전남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아 8일 오후 체육관에서 열린 'CNU 도전 그린벨'에서 학생·교수·직원·동문 등 참가자들이 화이트보드에 답을 적어두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시민단체 "무상우유 대체식 제공해야"

"음용 어려운 학생 건강권 침해"

광주 교육 시민단체가 무상우유를 먹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해 단체는 광주시가 우유 음용이 어려운 학생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행복추진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광주시 인권 읍무즈맨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이에 광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 지침을 근거해 대체식을 지원시 학생 및 업체보조금 환수조치 및 참여 제한으로 규정돼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광주시 인권 읍무즈맨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하지만 지난 3월 광주시 인권읍무즈맨은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무상우유급식 대상에 해당됨에도 우유를 먹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대체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시에 시대적 흐름과 관공에 따라 우유급식 수요조사와 대체식 예산 마련 등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광주 척추병원서 또 대리수술 의혹...경찰 수사

'의사 등 6명 처벌 요구' 고발장

광주의 한 척추병원에서 또다시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대리수술 처벌 전력이 있는 광주의 척추 전문병원에서 다른 의사들의 추가 대리수술 행위가 있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했던 고발인은 해당 병원 의사 3명과 의공학과 소속 간호조무사

(PA) 3명을 '보건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부정 의료업자의 처벌)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장을 냈다. 이 고발인은 해당 의사들은 의료인이 아닌 'PA'들에게 수술행위를 대신하게 했다며 2017~2018년 대리수술 정황이 기록된 의사 개인당 40~50건의 수술 기록지와 동영상 3개(의사 개인당 1건 동영상)를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는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나 무자격자들

을 포괄하는 의미로,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나 병원 직원이 절개와 봉합 등을 포함한 수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고발인은 지난해에는 다른 의사 3명과 PA 3명을 대리수술 행위로 고발했다. 이전 피의자들은 각각 집행유예 2~3년, 벌금 등을 1심에서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추가 고발된 의사는 새로운 의료진들이지만, PA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과 겹친다. 이전 처벌 대상이 된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 병원에서 정상 근무 중으로 파악됐다. /최환준 기자

동신대 과기부 선도연구센터 선정...107억7천만원 지원

동신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선도연구센터로 선정돼 오는 2029년 2월까지 7년 간 총 107억7,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동신대는 과기부 '2022년 집단연구사업' 선도연구센터 기초의과학 분야(MRC·Medical Research Center) 주관연구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8일 밝혔다. MRC 사업은 국가 바이오·건강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의·치의·한의·약학(기초의과학) 분야 우수 연구그룹을 선정한다. 전남에서 MRC 선도연구센터 선정은 동신대가 처음이다. 선도연구센터는 동신대 이미현 한의과대학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고 ㈜비엔텍, 한국콜마 홀딩스(주) 바이오연구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설한국내연연구원의 교수와 박사들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한다. 비위조절기반 '장-뇌축(Gut-Brain)' 시스템을 제어하는 한의과학을 본격 연구한다. 연구팀은 '비위 불균형'을 단순 소화기관 문제가 아닌 다른 기관에도 질병을 일으키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과 뇌 질환인 과민성대장증후군과 우울증의 원인을 밝히고 증상을 제어할 수 있는 한의 진단·치료 기술 개발에 힘을 쏟는다. /이나라 기자

<h2>장성 토지(매매 분양)</h2>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p>	<h2>상무지구(상가매매)</h2> <p>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 앞)</p> <p>시세 -> 9억 급매가 -> 6억</p> <p>(총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합,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기초반,중급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p>광주 광산구 삼거동(임야)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운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4억4천 (5/26)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5/11) 전남 담양군 향평면(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시외 충남 서천군(근린주택) ▶ 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전북 군산시(근린상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 (5/23)</p>
---	---	---

010-6670-9800